

피동표현 학평 기출 문제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에서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그리고 능동이 표현된 문장은 능동문, 피동이 표현된 문장은 피동문이라고 한다. 피동문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용언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피동사를 파생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구성된 '-아/어지다', '-게 되다'를 어간에 결합하는 방법이나 일부 명사 뒤에 '-되다'를 붙이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그런데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날씨가 풀렸다.'라는 문장은 피동문의 서술어가 동작이나 행위가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누가) 날씨를 풀었다.'처럼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능동문으로 만들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기에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등에 사용한다. 한편, 피동의 문법 요소를 두 번 결합한 이중 피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색한 표현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대상보다 행위의 주체가 강조된다.
- ② 객관적인 느낌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 ④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피동 접미사 이외의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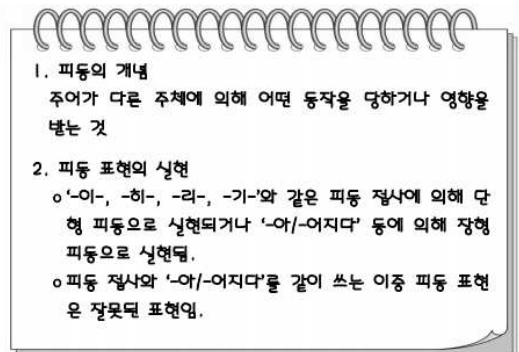
>

- ㄱ.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다. →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겼다.
- ㄴ.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누전으로 파악됩니다.
- ㄷ. 더위가 꺾었다. → (누가) 더위를 꺾었다.
- ㄹ. 이번 패배는 그의 실책으로 보여진다.

[3점]

- ① ㄱ에서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었군.
- ② ㄴ에서는 명사 뒤에 '-되다'를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군.
- ③ ㄷ에서는 서술어가 자연적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힘들군.
- ④ ㄹ에서는 피동 접미사가 두 번 결합한 이중 피동이 쓰였군.
- ⑤ ㄱ과 ㄷ에서는 모두 피동 접미사로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군.

3.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그녀의 손등이 고양이에게 ㉠ 긁혔다.
- 형이 동생에게 아끼던 인형을 ㉡ 빼앗겼다.
- 비가 내려서 운동장에 천막이 ㉢ 세워졌다.
- 도화지의 질이 좋아서 그림이 잘 ㉣ 그려졌다.
- 커다란 빵이 순식간에 여러 조각으로 ㉤ 나뉘었다.

[2점]

- ① ㉠은 '굽-'에 접사 '-히-'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② ㉡은 주어인 '형'이 '동생'에 의해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군.
- ㉢은 '세우-'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장형 피동으로 실현되었군.
- ④ ㉤은 접사 '-리-'와 함께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군.
- ⑤ ㉥은 '나누-'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가 나타난 피동 표현이군.

4.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피동 표현'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피동 표현은 주체가 남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예를 들어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라는 문장은 주체가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라 남에 의해 '잡는' 동작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피동 표현이다.

[2점]

- ① 밧줄을 세게 당기다.
- ② 동생의 머리를 감기다.
- ③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 ④ 후배가 선배를 놀리다.
- ⑤ 태풍에 건물이 흔들리다.

5. <보기>의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습 내용]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주로 어근에 접사 '-이-', '-히-', '-리-', '-기-', '-되다' 등이 결합하여 실현된다.

[학습 과제] 다음의 어근 목록을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드시오.

풀-	읽-	안-	깎-	이용
----	----	----	----	----

[2점]

- ① 이번 시험 문제는 지난번보다 잘 풀렸다.
- ② 그의 글은 오직 나에게만 아름답게 읽혔다.
- ③ 친구는 버스에서 자기 짐까지 나에게 안겼다.
- ④ 날카로운 칼날에 무성하던 잔디가 모두 깎였다.
- ⑤ 우리 학교 운동장은 가끔 주차장으로도 이용되었다.

6. <보기>는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선생님: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피동문을 만들 때는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서 짧은 피동을 만들거나, '-아/-어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긴 피동을 만듭니다. 그런데 ㉠ 일부 능동사의 어근에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지 못하여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점]

- ① 물고기가 낚싯줄을 끊었다.
- ② 경민이가 아기의 볼을 만졌다.
- ③ 민수가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 ④ 다람쥐가 도토리를 땅에 묻었다.
- ⑤ 요리사가 음식을 접시에 담았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담화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청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상황에 맞게 문법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법 요소에는 높임 표현, 피동 표현 등이 있다.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술어에 선어말어미 '-(으)시-'가 붙어서 실현되며, '주무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로 실현되기도 한다. 주체 높임에는 높임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과 높이려는 대상의 신체 일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으)시-'를 사용해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있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보통 '드리다, 모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로 실현된다.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이다.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데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같은 격식체와 해요체, 해체와 같은 비격식체로 나뉜다. 보통 공적인 상황에서 예의를 갖추며 상대를 높일 때에는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사적인 상황에서 친밀감을 드러내며 높일 때에는 비격식체의 해요체를 사용한다.

한편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 힘으로 함을 표현하는 것은 능동 표현이라고 한다. 그런데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거나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문장 성분에 변화가 일어난다. 피동 표현은 능동의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거나, 동사의 어간에 '-어/아지다', '-게 되다' 등이 붙어 실현된다. 그리고 일부 명사 뒤에 '-되다'가 결합하여 실현되기도 한다. 피동 표현이 실현되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므로 동작이나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간혹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를 중복으로 결합하여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잘못된 표현이 되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동 표현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일은 중요하다.

7.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학생 1: 어제 유기견 보호 센터에서 한 봉사활동은 어떠어?

학생 2: 응, 좋았어. 강아지들과 놀아 주고 산책도 했어.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도 전달했지.

학생 1: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구조되는 데 성금이 ㉣쓰인다고 해서 나도 모금에 동참했어.

학생 2: 아, 그래? 유기견 보호 행사가 다음 주에 ㉤열린다는데 너도 같이 갈래?

학생 1: 응. 좋아.

- [3점]
- ① ㉠은 능동의 동사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실현된 피동 표현이다.
 - ② ㉡은 피동 접미사 '-리-'가 쓰인 동사의 어간에 '-어지다'가 중복해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③ ㉢은 명사 뒤에 '-되다'가 결합하여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쓰인다고'와 같이 능동 표현으로 바뀔 경우 ㉣의 주어가 목적어로 바뀐다.
 - ⑤ ㉤은 행사를 여는 주체보다 '유기견 보호 행사'가 강조되는 효과가 드러나는 피동 표현이다.

8. <보기>를 참고할 때, 피동 표현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능동 표현: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냄.
예) 호랑이가 토끼를 잡다.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냄.
예)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히다.

- [2점]
- ① 동생에게 사탕을 빼앗기다.
 - ② 운동장에서 친구를 만나다.
 - ③ 친구가 기쁜 소식을 전하다.
 - ④ 교장 선생님께 고개를 숙이다.
 - ⑤ 할머니께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다.

9. 다음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문의 주어와 목적어를 각각 피동문의 부사어와 주어로 바꾸고, 능동문의 서술어에 알맞은 피동 접사나 '-어지다'를 붙여 피동문의 서술어로 만든다. 피동문을 쓸 때에는 지나친 피동 표현(이중 피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 기>

>

ㄱ. 마을이 폭풍에 휩쓸리다.
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ㄷ. 그의 오해가 동생에 의해 풀리다.

- [2점]
- ① ㄱ의 '휩쓸리다'는 '휩쓸다'의 어근에 피동 접사가 붙은 경우이다.
 - ② ㄱ을 능동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폭풍에'를 목적어로 만들어야 한다.
 - ③ ㄴ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행위의 주체가 '경찰'이 된다.
 - ④ ㄴ의 '잡히다'를 '잡혀지다'로 바꾸면 지나친 피동 표현이 된다.
 - ⑤ ㄷ의 '풀리다' 외에 '풀다'의 어간에 '-어지다'를 붙여도 피동문이 된다.

10.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피동'이란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남의 동작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국어 문장의 피동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타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적 피동, 용언의 어간에 '-어지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통사적 피동, 그리고 어휘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띠고 있는 ㉢어휘적 피동 등이 있다.

- [2점]
- ① ㉠: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 ② ㉡: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 ③ ㉢: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 ④ ㉢: 이제는 계절이 봄이 되었다.
 - ⑤ ㉢: 이번 만우절에도 거짓말에 당했다.

11.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 : 선생님, 피동 표현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선생님 :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보다 대상을 부각하고 싶을 때,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자 할 때,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사람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해요. 또한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기도 해요. 이제 아래 자료를 보고 피동 표현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 ㉠ [벌이 그를 쏘았다.
그가 벌에 쏘였다.
- ㉡ [내가 편지를 찢었다.
편지가 찢어졌다.
- ㉢ [기자가 내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다.
내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
- ㉣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이 뽑혔다.
- ㉤ [*A가 추웠던 날씨를 풀었다.
추웠던 날씨가 풀렸다.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학생 : [A]

선생님 : 네, 맞아요.

[2점]

- ① ㉠을 보니, 피동 표현을 통해 행위의 대상인 '그'를 부각할 수 있겠군요.
- ② ㉡을 보니, 피동 표현을 통해 '편지'를 찢은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수 있겠군요.
- ③ ㉢을 보니, 행위의 주체인 '기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군요.
- ④ ㉣을 보니, 행위의 주체인 '대통령'이 누구나 아는 사람일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군요.
- ⑤ ㉤을 보니,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워 피동 표현을 사용했겠군요.